

비상 3단계 격상... 부산시, 역대급 태풍 '힌남노' 대비 만전

대책회의서 기관별 대처사항 점검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 총력 대응
취약지역 주민 사전대피 등 추진

부산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일 낮 1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점검부터 시민홍보까지 빈틈없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오는 6일 새벽 제주도 부근을 지나 이날 아침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간 총 5회의 대책회의를 갖고 기관별 대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행정지원 지역담당관 782명 등 점검반을 투입해 재해위험 지역(962곳), 건설현장(299곳), 옥외광고물(78,446건), 배수구(2,855건), 방재시설(75곳)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시는 5일 오전 9시부터 비상최고단계인 비상3단계로 선제적으로 격상하고, 직원 7,600여 명을 투입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총력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지난 4일 부산 동구 부산항 5부두에 미리 대피한 선박들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다. /뉴스1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형준 시장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계획했던 파리 출장을 취소하고, 지난 2일과 4일 상황판단 및 대책 회의를 주재해 전 실·국·본부와 유관기관의 대처 상황을 점검, 총력 대응을 주문했으며, 영선2지구, 압남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곳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시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재산피해 최

소화를 위한 주요 대책으로 ▲반지하·저지대·산지 등 취약지역 주민 사전대피 ▲초고층 건축물, 타워크레인, 옥외 간판 등 낙하 방지 조치 ▲저지대 침수 대비 수방장비 점검 및 배치 ▲전기·가스·수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복구·지원 체계 가동 ▲해상교량, 하상도로, 지하차도 선제적 통제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산단 등에 출퇴근 시간 조정도 협조 요청키로 했다.

시는 시민행동요령과 재해우려지역 등을 사전에 숙지시켜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에도 집중한다. 재난문자, 예·경보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가용한 매체를 모두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부산시 누리집에서 태풍 전·중·후 시민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신속한 대피에 필요한 침수정보와 대피계획이 포함된 도시침수 재해정보지도 숙지할 것 또한 강조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빈틈없이 총력 대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안전을 위해 태풍 대비 시민행동요령과 침수정보, 대피계획을 사전에 숙지하고, 재난상황 발생 우려 시 행정기관의 사전대피 및 출입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남해군 추석맞이 생화 1000다발 나눔

남해군은 친환경 성묘문화 조성을 위해 추석 당일인 9월 10일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에서 '추석맞이 생화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남해군은 경남 화훼자조금협의회에서 생화 1000다발을 제공받아 추모누리를 찾는 성묘객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2023년부터 조화 사용을 금지하고 생화나 드라이플라워 등을 이용하게 하는 '친환경성묘문화 정착을 위한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거제시가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옥빛채' 준공식을 개최했다. /거제시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옥빛채' 준공식 개최

거제시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옥빛채' 준공식을 지난 2일 개최했다.

옥빛채는 주민설명회, 공공건축가의 자문 및 경관심의를 거쳐 2021년 7월 착공, 2022년 5월에 준공된 연면적 521㎡, 3층 규모의 주민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이다.

한편 옥포지역은 '옥포의 팍, 다시 일하고 살고 싶은 푸른 항구'라는 사업명으로 2019년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이다.

/거제(경남)=이도식 기자

함평군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전남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공모에 전남지역 최초로 선정됐다.

함평군은 전국 16개 지자체 중 전국 2위에 선정돼 6억50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교량, 급경사지, 저수지, 산사태 위험지역 등 노후 위험시설의 사고 위험 정도를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김해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김해시는 추석연휴 귀성객 이동과 축산농가 방역의식 해이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귀성객, 축산농가, 축산시설에 대한 차단방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추석을 전후한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위해 생석회 18t을 자율 공급하고 소독차량 7대를 동원해 야생조류 서식지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김해(경남)=장병호 기자

'목포시민과의 대화' 성황리

민선8기 시정 방향 소개
정책질의 등 52건 접수

목포시가 '2022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8월 29일 용당1·용당2·연·삼학동 권역을 시작으로 9월 2일 신흥·부흥·부주 권역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시의원 선거구 권역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시는 민선8기 시정 추진방향을 시민과 공유하는 한편 정책 제안, 생활민원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장인, 주부, 학생, 어린이 등의 목소리를 담은 시민인터뷰 영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귀담아들이며 호응을 얻었다.

'청년이 찾는 큰 목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컸던 가운데 산정동 주민주시은씨는 "목포에서 청년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에



목포시가 '2022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했다. /목포시

대한 기대가 큰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정목표인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를 만들기 위해 20만평 규모의 스마트산단을 조성해 1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안반도 통합을 통해 큰 목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화에서 접수된 정책 질의, 건의 사항 등은 총 52건으로 시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확보를 통해 추진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목포(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창원시 "에너지 아끼고 포인트 받으세요"

전기·수도·도시가스 절약시
총 5억2000만원 인센티브

창원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중 2021년 하반기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량을 5%이상 절약한 37,618세대에 대해 총 5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계좌입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이며, 현재 창원시는 11만 3000여세대가 가입돼 있다.

2021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에는 95,438세대가 참여하여 62.5%인 59,639세대가 에너지 절약(▲전기

11,740MWh ▲수도 532만3천㎡ ▲도시가스 35만㎡)하였으며, 총 8,223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탄소포인트제 참여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두달간 시행한 '제11회 공동주택 탄소포인트제 참여 경진대회'에서는 41개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진대회 기간 중 2천2백여 가구가 신규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탄소포인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냉난방 온도 조절, 대기전력 차단 등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경남)=장병호 기자

진주시, 전입자 위한 '생활가이드' 제작

다양한 사업·혜택 등 설명

진주시는 전입자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기 위해 진주시의 일반 현황과 시책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진주생활가이드'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진주생활가이드'는 진주시의 기본 현황, 이사 후 할 일, 생활안내, 지역경제, 복지제도, 도서관, 교통, 보건, 체육, 문화관광 등 10개 분야에 대한 민원 서비스, 다양한 사업과 혜택 설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정보 및 담당자 연락처도 함께 제공하여 시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진주'에 맞게 결혼부터 임신, 출산까지의 지원제도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 복지제도를 생애주기별 및 분야별로 정리해 시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있다.

책자는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전입신고 시 배부하며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주소지로 개별 우편 전달할 예정이다.

/진주(경남)=장병호 기자

광양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광양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6일 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시,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명예감시원,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농·축산물 단속 품목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1개 품목이며 음

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 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특히 추석에 맞아 농·축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5일시장, 상설시장 등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